

먹거리 '비상' ... 불안한 식탁

불가에서는 음식과 옷을 단순히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나 환락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다. 옷은 더위와 추위를 막아 몸을 보호하고 치부를 가리며, 음식은 깨달음과 불성을 성취하기 위해 수양할 때 그 몸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먹었다.

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했다. 또 돈벌이를 위해서는 사람목숨도 하찮게 여기는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도 새삼 기억을 새롭게 해준다.

납든 중국산 꽃계 발암물질 함유 목 황산 이용 식용유

특히 이번 '납꽃계'의 경우는 납성분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꽃계에 납을 집어넣은 행위 자체도 잔인함이 극에 달하지만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살인행위라는 사실에는 소름이 끼친다.

능력조차 없고, 환경호르몬이나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이나 기준도 없다. 이번만 해도 금속탐지기가 없어 육안검사만 했다는 국립수산물검사소의 변명밖에 들을 수 없었다.

부정·불량식품의 생산·유통 전반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벌 목숨에 꽃계에 납을 넣어 관인면수심의 업자들에게도 부처님 말씀을 빌어 한마디 해야겠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ia.com)

부처님은 음식을 외부세계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감각기관으로 여겼다. 음식에 대한 탐욕을 경계한 것도 그 탐욕에 따라 세상을 분별하는 감각이 마비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납꽃계'는 더이상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것은 아무것도

'인권상' 받는 일본군 위안부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아시아 여성들이 다음달 미국 국회 의사당에서 인권상을 받는다. 이번 인권상 수여는 미국 의회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배상을 촉구하는 입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결정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번에 인권상을 수여하는 위안부 2인 중 한 명인 김학순 할머니는 9월 20일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시상을 받는다. 김 할머니는 1939년 12월 14일 만주국에서 징용된 뒤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하다가 해방 후 귀국했다.

아동학대 '1391'로 전화신고

'아동학대 신고는 지역번호에 관계없이 1391번으로 신고하세요.'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해 24시간 긴급 전용전화인 1391번이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9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하순부터 전국 시도별로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과 치료실을 갖춘 16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다. 전문기관에는 전문상담요원이 배치되고 긴급전화(1391번)가 개설돼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는다.

결국 부패정치 못 막나

자금세탁방지법 입법예고 정치자금 조사·처벌 규정 빠져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금세탁방지법안과 금융거래보고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높다. 이 두 법안은 어이없게도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조사와 처벌 규정을 아예 빼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겠다는 '물범'도 입으로만 하는 마음으로 버려야 한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비난하고 있는지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라.



"러브호텔 난립 반대" 21일 고양시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고양시청 앞에서 일산 신도시 러브호텔 난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숙박업소 건립 불허와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영영금지 등을 촉구했다.

"의학연구 목적이라도 인간배아 복제 규제"

유럽연합 신기술윤리위

의학연구 목적에 한해 인간배아 복제실험을 허용한 영국정부의 결정에 유럽연합(EU) 집행위의 과학신기술 윤리위원회가 규제방향을 밝히고 나섰다. 윤리위원회 노엘 르누아르 위원장은 20일 "EU는 인간을 재생하는 목적의 복제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정부의 결정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인간복제 연구가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비록 의학연구 목적이라도 이를 윤리차원에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허용여부나 수준 등 법적 규제안을 종교계·의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인간배아 연구로 난치병과 유전병을 치료할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큰데다 게놈 해독과 관련해 생명공학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각국 과학자들이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와 미국도 연구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권교체 이후 김대중 정부가 인권을 강조하며 중요한 국정지표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인권'은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나면서부터 존엄하고, 누구에게도 그냥 넘겨줄 수 없는 소중한 인권이아말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물론 인권은 해방이나 구원이니 하는 말보다는 하위개념으로서, 우리들 삶의 기본적인 조건에 불과한 것이다. 인류공동체가 합의한 최초의 쓸만한 문건 '세계인권선언'의 정문과 본문 30개조에서 나오는 규정들도 다만 '기본'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정권교체 이후 대통령이 자랑하듯 우리나라도 인권선진국에 진입했는가?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고 있다. 시국사건 관련자들을 겨냥한 고문은 없어졌다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경·경의 수사를 통해 강압을 느껴야 하고, 장 안재우기 등 고문의 형태는 더욱 음성적으로 교묘해졌다. 불구속 수사를 확대한다지만 여전히 구속영장은 남발되고 있고, 부족한 판·검사 인력으로 인해 고뇌어린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그저 조문에만 매달려 있을 뿐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전관예우가 관치는 상황에서 돈 있는 의뢰인과 가난한 의뢰인의 차이는 그야말로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상황이다.

유정무죄 무전유죄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비아냥도 그치지 않고 있다. 인권의 척도라는 교도소, 구치소의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여 감옥 경험이 있는 대통령도 지도하는 정부의 감옥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청송구치소, 광주교도소 등은 진료를 아끼기 위해 암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진로도 안해주고, 죽음을 재촉했을 정도이다.

52년전 공포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안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것 투성이다. 세월호 참사가 불과 작년의 일이고, 거리 치안은 여전히 불안하고,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인권교육 필요성 절감

물론 이런 일들이 모두 다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인권문제 중에는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사인(私人)간의 인권유린도 적지 않다. 왜 그럴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즉 서로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자신의 인권도 지키려는 공동체적 의식, 인권의식이 크게 부족한 탓일 것이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계)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연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계)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힘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시미놀' 성분은 대량추출된 새로운 기능성을 품고 있는...